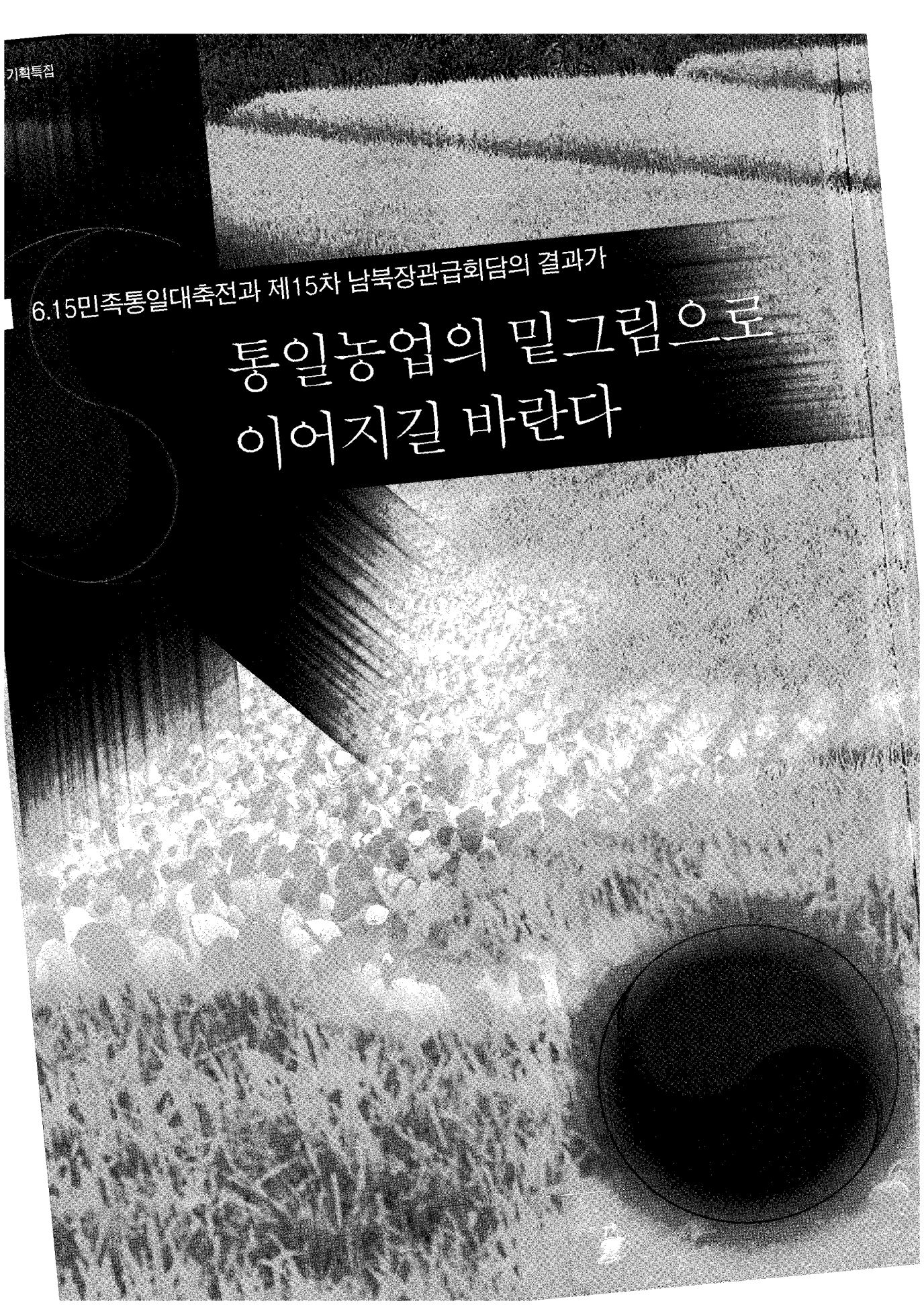


6.15민족통일대축전과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결과가

통일농업의 밑그림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6.15 통일행사 평양에서 개최!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4일부터 3박4일간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 행사가 치러졌다. 이번 통일행사에는 남측에서 민간 대표단 300명과 정부 대표단 30여명, 북측은 남측대표단 수에 맞추고, 해외는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하지만,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은 당초 남측대표단 615명의 방북이 예정이었으나, 북측에서 미국의 북핵문제 압박과 정치체제 모독, 스텔스기 배치 등의 이유를 들어 6월 1일 대표단 규모의 대폭 축소를 요청하면서 평양 행사에 큰 난관을 맞게 되었다.

서정의 중앙회장, 민간대표단 일원으로 참가

자칫 행사가 무산될 위기도 있었지만, 6.15남측위원회 방북 대표단의 백낙청 상임대표 등이 북측과 대표단 규모를 조정했고 300명 선에서 합의를 거쳐 행사를 치루게 되었던 것이다. 한농연도 애초에 서정의 중앙회장, 박노욱 수석부회장, 탁명구 사무총장 등 3명을 남측 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할 예정이었지만, 전체 행사규모가 축소되면서 서정의 중앙회장만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민족내부의 반목과 대결의

경향신문 6월 17일자 5면, 615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한 남측 농민본부 인사들이 북측 조선농업근로자동맹중앙위원회 대표자들과 함께 15일 평양 인근 원화리협동농장을 방문했다. (중앙이 강창욱 북측 농근맹위원장, 오른쪽이 서정의 중앙회장)



과거를 화해와 단합으로의 전환,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한반도에 정착시키고,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민족의 힘을 모으자는 의미에서 “민족 통일선언”을 채택하였다.

농업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 기대

이러한 민간차원의 합의는 6월 21일부터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는 23일 공동보도문을 발표함으로써 얼어붙었던 남북대화를 민간차원의 논의에서 실질적인 남북정부 간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보다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중 남북의 농업분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남북장관급회담 산하

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에 식량을 제공하는 등 농업분야도 보다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한농연 단독 남북농업교류 진행

이번 6.15행사를 위해 방북했던 서정의 중앙회장은 지난 북녘비닐보내기에 이어 한농연 단독 남북농업교류사업을 북과 협의하였고, 구체적인 교류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7월 중 실무접촉을 하자는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

한농연은 현재 시군연합회 별로 50만원(총액 약 7천7백만원)을 모금하고 있으며, 한국농어민신문사의 수익금 일부를 남북교류사업에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